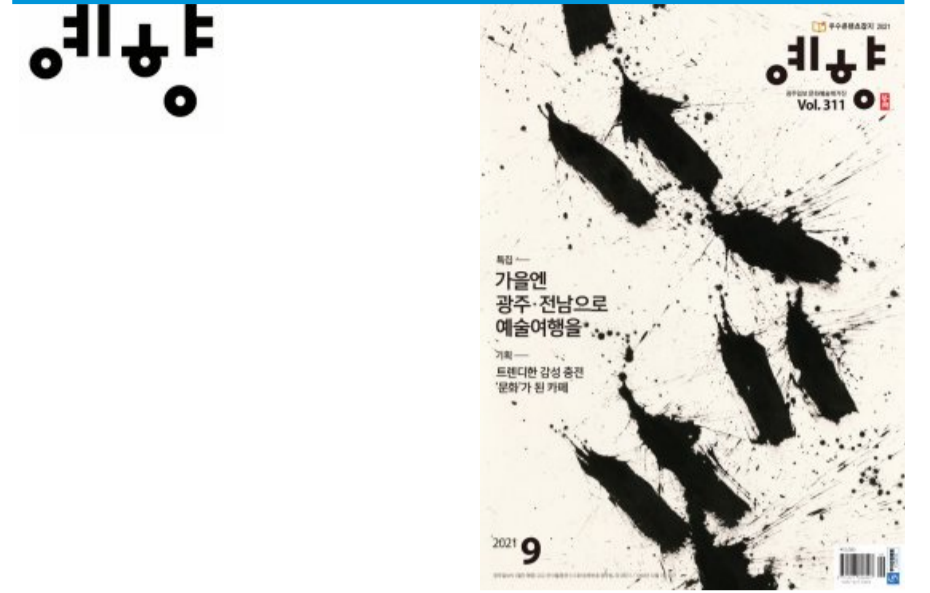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전 11월 7일까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9월호



이건희 컬렉션을 만나는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전이 1일 개막에 오는 11월7일까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 김환기·천경자... 거장들의 명작에 탄성

## 감성충전 여행 '카페, 문화가 되다' 남원으로 떠나는 '남도 오디세이'

첫 작품 김환기의 '무제' (121x86cm)를 접하자마자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십자 형태의 조형성과 한국 전통 오방색이 어우러진 작품은 오묘한 느낌을 전한다. 뉴욕 시기의 작품으로, 그의 화풍에 자주 등장하는 달형이나 대포적인 전면점화(全面點畫)와 달리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화면 구성이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대담한 선과 여백, 화폭에 번지듯 스민 다채로운 색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지난 30일 광양 전남도립미술관(광양 이진호)에서 만난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단 1점이었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 오지호·유영국 등 8명 작품 19점 아카이브 자료 배치, 연표도 설치

오지호 화백 작품은 5점이 나왔다. 해가 진 저녁 무렵 풍경을 담은 '항구풍경', '설경', '잔설', '복사꽃 피는 풍경' 등을 통해 작가의 다양한 화풍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970년작 '풍경'은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등에서 접했던 오지호 화백의 작품과 결이 달라 흥미롭다. 작가가 30대에 몰입했던 인상과 화풍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작품은 짙은 녹색이 우거진 녹색 숲의 생동감과 푸르름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그밖에 임직순 화백의 작품으로는 원색의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여인 좌상'을 만날 수 있다.

간호부터 표지화를 그렸던 문예잡지 '현대문학'과 조연현 평론집 '휴일의 의장' 등 다양한 서적을 통해 그의 화풍을 만날 수 있어 '또 다른 작은 전시'를 보는 느낌이 든다. 또 천경자 화백은 표지화를 직접 그린 '그림이 있는 나의 자서전', 산문집 '꿈과 바람의 세계' 등 책자를 함께 전시했다.

미술관측은 또 이들 작가의 대표작을 태블릿 PC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4명의 작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조우하고, 교류했는지 살펴보는 연표도 전시하고 있다.

타 지역 작가로는 유영국과 유강열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유영국의 대표 시리즈인 '산'은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의 다양한 변용을 만날 수 있으며 '무제'는 호수와 바다, 지평선과 수평선, 평화로운 달이 어우러진 장면이 평화롭게 펼쳐진다. 뉴욕 등에서 판화와 공예 작업을 했던 유강열의 판화 작품 '무제'는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이다.

그밖에 김은호의 '산수도 10곡병', '임어' 등 4작품과 경주 숭거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한국화가 박대성이 광복전에 수목채색화로 그린 '서귀포', '왕원정설경' 등도 전시돼 있다.

한편 도립미술관에서는 또 다른 2개의 대형 전시도 만날 수 있다. 전남수목비엔날레를 기념하는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전은 1일 개막하며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에 등장해 파격적인 작품으로 현대미술의 전위에 선 러시아 출신 4인조 예술그룹 ASF+F의 'ASF+F. 길 잃은 혼종, 시대를 갈다'전은 3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2시간(하루 4타임) 당 관람 인원 240명. 인터넷 예매, 현장 예매 동시 진행.

/광양=글·사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지호 작 '풍경'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표지화로 쓰인 '현대문학' 잡지.



지난 4월 전남도립미술관이 기증받았던 이건희 컬렉션을 만나는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이 1일 개막해 오는 11월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김환기·천경자·오지호·임직순 등 4명의 지역 작가와 유영국·박대성·김은호·유강열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장식한 거장 8명의 작품 19점이 나왔다. 21점의 기증작 중 허백련 화백의 2점은 작품 상태를 고려해 차기 소장품 전시회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미술관측은 특히 이번 전시에서 남도 작가들의 작품을 한곳에 배치하고 아카이브자료 등도 전시해 남도 여행의 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전남 출신 김환기·천경자·오지호 화백과 충북 괴산 출신이지만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호남 화단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직순 화백이다.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의 작품은 1970년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만난 '여행 풍물화' 두 작품이 전시됐다.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에서 미술관 소장작으로 천경자 화백의 드로잉 작품만을 접할 수 있어 다소 아쉬웠던 마음을 이 곳에서 화려한 채색작품을 통해 풀 수 있다. 종이에 그녀 특유의 원시적 색감으로 풀어낸 대작 '만'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9월호가 발간됐다. 이번호의 특집은 '가을엔 광주·전남으로 예술여행을'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미술축제가 시작됐다. 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 21'도 10월 개최를 앞두고 사전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예술의 향기를 더해줄 공연 무대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올가을, 광주·전남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과 비엔날레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남도의 매력 여행지로 안내한다.

여행 초대석이 만나볼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계의 거장 이진용(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작곡가다.

광주 시립오페라단은 지난 8월 27~28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진용, 오페라 박하사탕'을 초연했다. 빛과 어둠이 뒤엉킨 '오월 광주'를 노래하는 오페라 '박하사탕'을 작곡하고 예술감독을 맡은 이진용 작곡가를 만나 음악인생과 작품세계에 대해 들었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미로)는 '사랑의 1번지' 남원으로 떠난다.

남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다. 광한루원과 한옥형 호텔 '남원예촌', 한복체험공간 '화인당(花人堂)'은 남원의 어제와 오늘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최근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 둘레길'과 운봉 서어나무숲,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등 남원만의 생태공간이 인기를 끌고,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고택 '몽심재(夢心齋)' 등도 진한 문화의 향기를 발산한다. 지리산 고랭지에서 자란 향긋한

캠벨포도와 남원이 자랑하는 남원부각, 남원추어탕까지 맛있는 이야기도 이어진다.

여행지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맛을 자랑하는 카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난방 뷰로, 사계절 딸기 듬뿍 케이크로, 음악이 흐르는 오디오 카페로 전국 유명소가 된 핫한 카페들을 소개한다.

'문화는 품은 건축물'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박수근미술관이다. 인구 2만 여명의 양구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데다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다 보니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제 양구는 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지난 2002년 빼어난 건축미와 컬렉션을 자랑하는 박수근미술관이 개관하면서부터다. 건물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인 박수근미술관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선묘양자의 사랑과 뜬 들의 전설을 지닌 아름다운 화엄의 중찰 부석사를 찾아가고, 로컬음악의 힘을 조명한 책 '모모는 철부지-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을 소개한다. 팀의 에이스와 임시 주장까지 책임감을 안고 2021 시즌을 달리고 있는 KIA타이거즈 투수 임기영과, 연말 방영 예정인 KBS대하극 '태종 이방원'에서 정도전 역을 맡아 최근 나주를 찾은 배우 이광기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